

# '재활용 환경더하기 공간' 개소

### 전북교육청, '학생들 정책제안' 으로 성사 의미 자발적 기부, 필요한 사람 바뀌가는 방식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구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층 고객지원실 앞에 재활용 환경더하기 공간을 마련했다. 환경더하기 공간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이 바뀌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 공간은 학생들의 정책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환경정책실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푸른꿈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천했던 내용들을 도교육청에 제안한 것. 푸른꿈고 학생들은 '푸른마켓'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버려지거

나 장롱속에서 잊혀지는 옷들을 기부받아 세탁·정비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푸른꿈고 학생들은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줘 매우 기쁘고 감사드린다"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재활용 나눔공간의 본질은 '달여내기' 아닌 '살리기'다"면서 "그동안 삶의 기준에 비춰보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위기에 빠진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동참해



전북교육청은 1층 고객지원실 앞에 '재활용 환경더하기 공간'을 개소,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이 바뀌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환경더하기 공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 /장은성 기자

## "대학의 위상 회복 밀알 되길"

###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 전북대에 발전기금 기탁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자원 분석인증센터(센터장 이진호)가 3억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는 21일 총장실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학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밀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이번 기금을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 신정동에 소재한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과 관련된 인증 및 분석

사업, 농가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축산 자원을 포함한 환경자원을 개선하고, 관련된 학문적 연구개발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 이진호 센터장은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전북대의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보탤다"며 "학교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창업기업 돕는다

### 18개 업체 대상 온라인 기획전 위메프 통해 판매·홍보 진행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초기 창업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기획전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창업지원단은 올해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검증된 지역 내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한 달 간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www.wemepre.com)와 협력해 온라인 홍보 및 판매 기획전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대를 비롯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원광대 등의 협업을 이뤄진 이번 기획전에서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인 패션 항공마스크가 판매되고, 18개 기업의 홍보 페이지가 전시됐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우수 제품과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대규 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 홍보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이번 기획전을 통해 홍보 효과와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채한정)이 독일에서 분사를 둔 제약·화학 글로벌기업인 '머크'와 협약을 체결, 바이오 신약개발 연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전북대 약대, 독일 제약기업 '머크'와 협약

### 바이오 신약개발 연구 협력

전북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채한정)이 독일에서 분사를 둔 제약·화학 글로벌기업인 머크사와 협약을 체결, 바이오 신약개발 연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학대학은 21일 학장실에서 채한정 약학대학장과 신동민 머

크 생명공학 R&A 컨트롤헤드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약산업 리더와 생명 존중 약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바이오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머크에서는 전북대 약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산업야사 실무실습 사이트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채한정 약학대학장은 "독일 머크 그룹은 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화학 기업중 하나로 오랜 시간 동안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약학분야 우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북대 약대의 연구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지역혁신 성장포럼

전북대학교 지역혁신협력실은 22일 도내 인구변동에 대비한 협업구조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 성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전북지역의 인구 변동 특징과 과제 및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고 인구변동에 대비해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는 충남대 정광희 교수(사회학과)의 주제 발표와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전북연구원,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서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전라북도 종합인구대책과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 등 기존 시행 중인 인구 정책을 검토했으며, 참가기관

들의 다양한 의견과 인구유위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광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북은 저출산·고령화 및 장수화, 인구이동 및 감소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변동에 대비해 민관협력사업의 유형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 기업, 전문가, 주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구정책 현안에 대해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및 제안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등용문직업전문학교·드림직업전문학교와 협약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은 대학의 평생 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연계·협력을 골자로 등용문직업전문학교 및 드림직업전문학교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호 간의 진로·진학정보 및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 제공 ▲성인학습자에 적합한 수업내용과 수업방식에 대한 연구 협력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공동교재의 개발 협의 ▲세미나, 특강 등을 통한 최신 기술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동승 미래융합대학장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성인학습자의 직업 전문교육 및 재취업 교육을 진행해 온 등용문직업전문학교와 드림직업전문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이 성인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